***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18일 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46호

이회창은 미국에 뼈를 묻으라

반미운동가 김정철씨 - 구국의 소리 (오늘의 연단) 주체91, 3월 16일~17일

이회창이 지난 1월 한나라당패당들을 끌고 5박6일간에 걸쳐 미국행각을 해 부시행정부의 실권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잘 돌봐달라는 청탁을 하며 비굴한 자세를 보여줬는데요. 이회창과 함께 갔던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 잘보여야 한자리 할 수 있는 한국의 정치인이라고 그럽니다. 허나 이회창이 노는 꼴, 이회창이 당하는 수모는 창피해서 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회창이 부시행정부 실권자들을 만나는 자리마다는 부시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주로 묻고 이회창총재가 답변하는 형식이여서 마치 대선을 앞둔 검증절차처럼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이회창의 미국행각 그것은 대선후보자격을 따내기 위한 면접시험을 보러 갔던 거라고 할겁니다. 반미운동가 김정철씨의 글 ≪이회창은 미국에 뼈를 묻으라≫를 임기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천하는 시대를 정확히 표시할줄 아는 능력은 정치가가 지녀야할 자질에서도 근본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시대감각이 예민하지 못한 정치가는 민의를 대변할 수 없고 일순간의 기득권은 챙길 수 있다해도 종당에는 민중의 규탄과 배격, 대파멸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정치가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이런 초보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정치적 미숙아가 대통령꿈을 꾸고 있어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항의를 받고 있다. 그가 다름아닌 한나라당의 이회창총재이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그 천부적인 속셈, 기질에 권좌에 대한 야망까지 가세하여 온갖 배포유망언을 늘어놓아 민중의 항거의 대상이 되고 자기 측근들로부터도 배척받고 있는 현대판 놀부, 죄악의 정치인 이회창. 그 이회창이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더더욱 미국의 주위에 줄서기를 하며 비위맞추기에 급급하는 꼴은 실망감을 넘어 분격을 가중시킨다.

최근들어 그가 미국의 반북대결의 나팔수가 되어 토해낸 몇가지 악담들만 보자.

≪한반도 긴장완화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해소이다≫, ≪북은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한미간의 굳건한 공조로 국민을 안심시켜야한다≫, ≪한국사회의 반미감정은 노근리, 매향리 등에 국한된 지극히 일부의 감정이다≫

까마귀 아무리 울어도 까욱소리뿐이라고 그가 내뱉는 말들에서는 민족을 위한 사고라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입만 벌어지면 자기들이 문제로 지적해왔던 바를 부시정권이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고 반기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으니. 재미언론인 김민웅씨의 경우도 ≪이회창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란 말인가.≫

이회창의 골수에 대미사대의식이 꽉 들어찬 특등매국노라는 것은 최근 드러난 미국대사관과의 접촉관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한 월간잡지에 따르면 이회창은 자기 당 의원들로 하여금 미대사관 성원들과 친분을 쌓게 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스스로 미국의 정계, 사회계 인물들과 접촉했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미대사관과의 관계를 잘 가져보려는 속셈밑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미대사관 성원들간의 친선골프놀이도 계획하는 추태를 보였다. 오죽했으면 미대사관측까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겠는가.

되새겨보면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예속이 강요되는 이 땅에서는 지난 기간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며 상관의 입김에 힘입어 권좌에 오를 야망을 꾼 대통령병환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회창과 같이 앞뒤분간도 못하고 시대흐름에 역행해서 민족을 팔고 민족을 망신시킨 그런 대통령병 중환자, 민족반역자는 없었다.

지금은 우리 민중이 미국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의 열매를 친미사대매국세력에게 찬탈당하던 1960년대도, 80년대도 아니다. 지금은 21세기이며 현시대는 7천만 겨레 모두가 6.15공동선언이행에 발걸음을 맞춰나가는 자주통일시대이다. 이 시대의 주적은 미국이며 주타격대상은 외세에 아부하며 일신일파의 부귀영달만을 꾀하는 민족분열세력이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쓰레기 부시는 방한시 목을 내놓아야 한다≫, ≪부시방한 자체가 전쟁이다≫, ≪전쟁의 씨뿌리는 악의 근원 미국을 몰아내자≫, ≪꺼져가는 미국의 숨통을 전민족의 단합된 투쟁으로 꽉 조여주자≫.

한국반미항전사 어느 갈피에 이렇듯 격조높은 반미함성으로 경향을 휩쓸며 투쟁한 사례가 기록된 적 있었던가. 부시방한을 계기로 각계층 단체들이 발표한 그 많은 문서들이, 600여개의 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결하여 벌인 동시다발집회 등 각종 투쟁들에 자주로 끓어번지고 통일로 맥박치는 오늘의 시대상이 응축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회창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구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청와대입주야망을 이루어보려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

지난해 ≪말≫지 12월호는 ≪이회창대선가도 아킬레스건 9가지≫라는 제하의 글에서 보수수구노선만을 견지해온 이회창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만한 인물이 못된다는 점을 첫번째로 꼽았다.

한총련은 지난 2월 3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회창을 통일시대의 자격미달정치인으로 낙인하고 그의 정치적 운명에 종지부를 찍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충청총련은 이회창이 미국에서 한 언동을 규탄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회창은 미국에 뼈를 묻으라고 비수같이 **했다.

그렇다. 민족반역배들에게는 민중의 항의와 규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앞날도 없다. 자주통일열기로 끓어

번지는 이 땅에는 그런 인간추물들이 호흡할 공기도, 딛고 설 대지도, 죽어 묻힐 한평의 땅도 있을 수 없다. 40여년전 민중의 저주를 받으며 하와이로 쫓겨가 객사한 미국의 노복 이승만의 불후한 운명이 그러했다. 아직도 이 땅에 이회창과 같이 민족의 이익을 희생하는 댓가로 정치적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사대매국분자들이 있는한 이승만의 비참한 종말은 결코 과거의 교훈일 수만 없다. 이 땅의 각계 민중은 이회창과 같은 시대의 오물을 정치무대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 더욱 줄기찬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북남합의서의 채택은 우리의 커다란 승리이다

세기와 더불어
3 4장 5절 조선혁명군 (3)

칭송
5 인민군군인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5 통일의 장군 / 위대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

한국민족민주전선
6 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6 외세공조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을 이룩하자
7 변하지 않은 부시의 전쟁광신적 본색
8 도라산역을 두고
8 부시의 변명
9 이회창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공세
9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16일

광고
15 신입생들에게 권고하는 교양서 10선 (5)

조선중앙통신
10 주체91, 3월 16일 보도
11 자주의 흐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2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아리랑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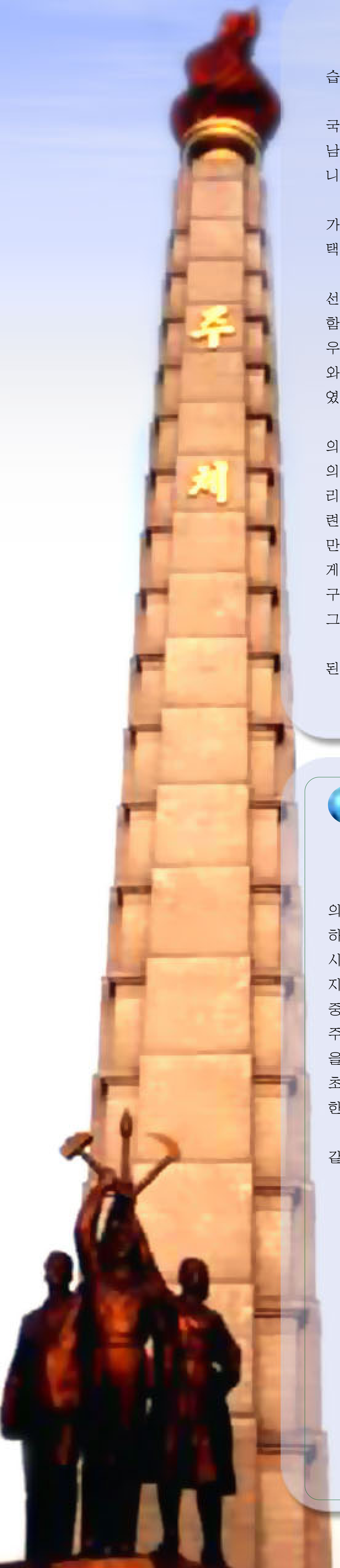
13 주한미군 범죄를 고발한다(1)
13 매향리에 희망의 매화나무를
13 시민단체, 미국상품 불매운동 나서
14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
14 민간, 금주 북에 실무접촉 제의
14 국민의 86.2%가 발전소 매각 반대

운동강좌
15 청년학생대중조직의 민주주의적 운영 (3)

조국통일3대헌장
16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3)

북남합의서의 채택은 우리의 커다란 승리이다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들과 한 담화 / 주체80(1991)년 12월 13일



동무들이 남조선에 나가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무들이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북남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우리의 커다란 승리입니다.

동무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남조선당국자들이 끝내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성실한 노력을 다시한번 크게 과시하였습니다.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게 됩니다. 합의서가 채택된 것만큼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을 명분도 없게되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할 구실도 없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둘이유도 없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진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애국과 매국과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번에 북남합의서를 받아물면서 북남최고위급회담 개최문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형편에서는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미 여러번 말하였지만 북과 남의 두 최고위당국자가 마주앉아 차나 마시면서 연설이나 하고 헤어져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나라의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연방제통일방안을 내놓았고 남측에도 그에 상응한 안을 내놓아라, 그래야 서로 마주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아직까지 상응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우리의 연방제통일방안과 비슷하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방제통일방안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하자는 것인데 남조선당국자들의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 실현될 수 없는 제도통일론이며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민족분열의 고정화입니다.

오늘에 와서 연공을 반대하고 민족의 대단결에 기초한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합류해 나서지 않는 사람은 사대매국노들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김구도 최덕신도 다 우리를 찾아와서 손을 잡았고 김규식을 비롯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찾아와 연공에로 돌아섰습니다. 김구는 ≪상해임시정부≫에 있으면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반공분자였지만 그래도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적 양심은 다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는 우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김구는 북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매국역적이 될 수야 없지 않는가고 하면서 김구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지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날 반공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전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서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이 없습니다.

동무들은 역사적인 북남합의서를 채택한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그 실행을 위한 투쟁을 더 힘있게 벌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끝)

정치사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하여 제시하신 통일방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밝히시면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8권, 373페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나라의 북과 남에 오랜 기간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오고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이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로서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한다. 통일정부는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며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한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라고 하며 통일국가는 어떠한 정치군사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것이 조국통일의 과도적대책으로 취해 진 림시적인 련합인것이 아니라 그 창설자체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으로 된다는것과 중앙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권국가라는 점에서 종전의 남북련방제와 구별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북과 남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립장에서 서로 련합하여 평화적으로 통일국가를 세울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현 조건에 맞는 유일하게 정당한 조국통일방안이다.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5. 조선혁명군 (3)

삼촌은 그날로 홍원읍에 들어가 집결장소인 최진용이네 집에 찾아갔다.

최진용이라고 하면 형권삼촌 뿐 아니라 나도 잘 알고있는 독립군 관계자였다. 그가 무송에서 안송총관소의 총관으로 일할 때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원래 조선에서 면장질을 할 때 돈을 떼먹고 그것이 탄로되어 인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자 동북으로 도주해와서 정의부를 따라다니였다.

한때는 우리 집에 아주 눌러앉아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을 몇 달동안 얻어먹은 일도 있었다. 최진용은 일제가 만주로 쳐들어온 기미가 보이지 이제는 나이가 있어 독립군시중을 하기가 힘에 부치다고 하면서 무송을 떠났다. 그때 그는 자그마한 과수원이나 하나 장만해놓고 깨끗하게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홍원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나가자마자 일제의 밀정으로 되었다.

형권삼촌은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최진용은 적의 경계가 심하다는 구실로 삼촌을 뜨락의 구석진 곳에 숨겨놓고 경찰서에 달려가 만주에서 나온 무장단이 자기집에 있다고 밀고하였다. 삼촌이 경찰서에 끌려가니 최효일도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최효일을 밀고한 것도 물론 최진용이었다.

삼촌은 그때에야 최진용이 일제의 주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진용의 변절은 너무도 뜻밖이었고 돌발적인 것이었다. 하루 세끼씩 몇 달을 두고 더운 밥을 해서 상우에 반주까지 놓아 푸짐하게 대접해주던 성주 어머니의 은혜를 백골이 되어서도 잊지 않겠노라고 념불처럼 외우던 그 인간이 그처럼 더러운 배신의 길을 걸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래서 나도 최진용이 삼촌을 밀고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동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사람을 믿는 것은 좋지만 환상을 가지고 대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환상이란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뛰여난 천리혜안을 가진 사람도 수습하기 어려운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난 것은 정웅 한 사람뿐이었다. 정웅은 소조가 국내로 나갈 때 삼촌이 길안내자로 인입한 사람이었다. 고향이 리원인 그는 동해안 일대의 지리를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도 후에 춘천에서 밀정의 고발로 체포되었다. 형권삼촌은 체포된 후 얼마동안 홍원경찰서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후 함흥감옥에서 다시 이송되어 거기서 또 중세기적인 고문을 받았다.

함흥지방법원에서의 법정투쟁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 그 때 형권삼촌은 법정에서 일제의 죄상을 추상같이 단죄하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웨치였다고 한다.

삼촌이 이처럼 법정에서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었던 힘을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혁명에 대한 신념과 충실성이였다고 생각한다. 삼촌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을 정의롭고 용감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신념에 대한 배신이었을 것이다.

최효일은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삼촌한테는 15년의 징역형이 떨어졌다고 한다. 삼촌과 그 전우들은 재

감옥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으시는 김형권 동지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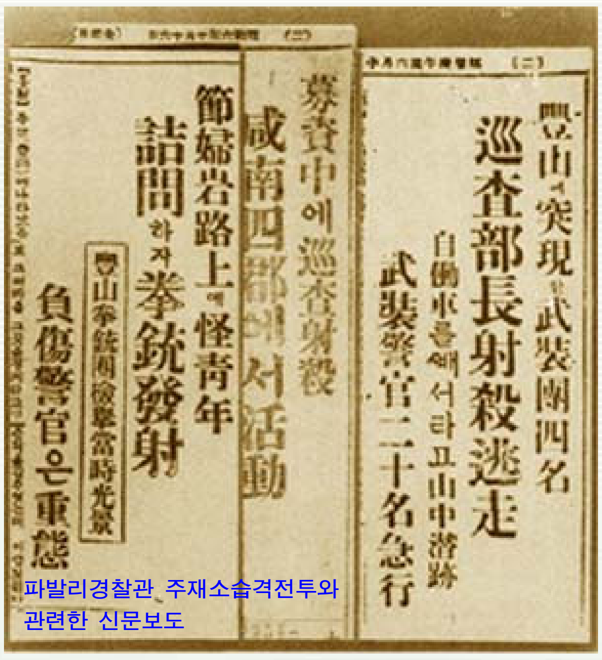
판장에서 혁명가요를 우렁차게 불렀다. 노래가 끝나면 구호를 냅다 불렀다.

소조성원들은 법정투쟁기간을 연장하려고 서울복심법원에 상소하였다. 함흥재판에서 쓴맛을 본 일제는 서울에서 한명의 방청도 없는 비밀재판을 하였다. 놈들은 그때 함흥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시인하였다. 최효일에 대한 교수형은 판결이 내린 후 얼마 안 있어 인차 집행되었다. 최효일은 잘 싸워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사형장으로 태연하게 걸어나갔다.

형권삼촌은 10년이상의 장기수들만을 주로 가두어두는 서울의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 감옥에서도 삼촌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놈들이 중형을 진 ≪정치범≫들을 전향시키려고 책동할 때 삼촌이 수많은 수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상전향을 반대하는 열화같은 연설을 하여 군중을 격동시키고 ➡

함흥지방법원에서 일제교형리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시는김형권동지


豊山에突現한武裝團四名
巡査部長射殺逃走
自働車를뺏어타고山中潛跡
武裝警官二十名急行

募貴中에巡査射殺
咸南四郡에서活動

節婦岩路上에怪青年
詰問하자拳銃發射
豊山拳銃團後聞當時光景
負傷警官은重態

파발리경찰관 주재소습격전투와 관련한 신문보도

수감자들에 대한 대우개선투쟁의 앞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 사연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소개되었다고 생각한다.

놈들은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탄알상자를 만드는 작업에 수인들을 내몰았다. 수인들은 그때 7등밥을 먹으면서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분격한 형권삼촌은 10월 혁명기념일을 계기로 교형리들의 살인적인 강제로동을 반대하는 옥내공장수인들의 파업을 지도하였다. 이 파업에 많은 수인들이 참가하였다.

놈들은 삼촌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캄캄한 독감방에 가두어두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팔목과 발목에 고랑쇠를 채워 조금만 움직여도 그 고랑쇠가 살을 파고들게 하였다. 식사도 하루에 아이들 주먹만한 콩밥덩어리를 한개씩 들이밀었다. 삼촌이 그처럼 엄혹한 처지에서도 투쟁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감옥당국자들은 김형권이 마포형무소를 적색화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어느날 박차석은 감옥안에 있는 공장에 나가 일하다가 우리들이 만주각지에서 무장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형권삼촌에게 전하였다.

삼촌은 그 소식을 듣고 철창에 끌려온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박차석의 손을 붙잡고 목멘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며칠 가지 못할 것 같소. 살아남은 동무들이 끝까지 싸워주오. 형기가 끝나 이곳에서 살아나가면 만경대에 계시는 나의 어머님을 꼭 찾아보고 내 이야기를 해주오. 앞으로 성주를 만나거든 내 소식을 전해주고 내가 최후의 순간까지 굴하지 않고 싸웠다고 말해주오.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요.≫

삼촌이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아주 누워있을 때의 일이였다.

삼촌이 사경에 처하자 형무소에서는 면회를 와도 좋다는 통지를 만경대에 보냈다. 형록삼촌이 그때 돈으로 40원을 꾸러가지고 친척인 봉주와 함께 서울에 가서 마지막으로 형권삼촌을 만나보았다.

≪형무소에 가니 간수가 병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구나. 다른 죄수들은 다들 앉아있는데 병신이 되어 다 죽게 된 우리 형권이만은 백골같은 모습으로 누워있지 않겠니. 그때 기가 막히던 생각을 하면.... 나를 보자 말소리도 못내고 입만 우물우물하는데 어찌도 참혹해졌는지 그게 내 동생이라고 믿기 어렵더라. 그런 동생이 오히려 나를 보고 웃으면서 ≪형님,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지만 왜놈들은 꼭 망합니다.≫하고 말할 땐 역시 우리 형권이 답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구나.≫

내가 조국에 개선하여 고향집을 찾았을 때 형록삼촌이 나에게 한 말이였다. 나는 그 회고담을 듣고 형권삼촌을 비판한 것을 후회하였다.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의 김형권동지

동생의 처참한 형상을 보고 정신까지 잃었던 형록삼촌은 그때 간수들에게 요구했다.

≪내 동생 형권이를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게 해주오.≫

간수는 그말을 듣자 ≪안돼. 네 동생은 살아도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이곳에서 죽어 감옥귀신이 되야해. 집에 데려가지는 못해.≫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동생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겠소. 동생이 집에서 치료를 받고 몸이 추선 다음 여기에 다시 와있으면 되지 않소.≫

≪이놈아, 징역을 대신 사는 법이 어디있어?≫

≪법이야 당신네들이 내면 법인데 왜 못하겠소. 그렇게 좀 해주오.≫

≪이놈, 어디서 이따위 수작질이야. 동생이 나쁜 놈이더니 형이란 것도 몹쓸 놈이구나. 너희네 종자는 다 나쁜 놈이다. 어서 당장 나가라!≫

간수들은 이렇게 고함치면서 형록삼촌을 감옥에서 쫓아냈다. 형록삼촌은 생각다못해 간수에게 돈 16원을 맡기며 ≪아무쪼록 우리 형권이를 잘 돌봐주시오.≫하는 부탁을 남기고 만경대로 돌아왔다. 그 정도의 돈을 먹는다고 교형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리 만무하였지만 삼촌은 수중에 있던 돈을 다 털어놓았다. 감옥에서 돌아온 삼촌은 한달동안 잠을 자지 못하였다. 눈만 감으면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후 석달만에 형권삼촌은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었다.

1936년 초이니 내가 2차 북만원정을 끝내고 부대와 함께 남호두지방으로 가고 있을 때였다. 그때 삼촌의 나이가 서른한살이였다.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동생도 가고 삼촌마저 가니 혁명을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저미던 나의 혈육들은 다 가고 없는 셈이였다. 나는 그때 산에서 삼촌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나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망국의 한을 품은채 고국의 이름모를 언덕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삼촌의 원쑤를 갚고 기어이 나라를 찾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사망통지서를 받고서도 로자가 없어 시체를 찾아오지 못해 삼촌이 마포형무소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가슴아픈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왜놈들을 족치고 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

나는 형권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륜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군한다. 형권삼촌에게는 영실이라고 부르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해방후 만경대혁명학원에 다니였다. 나는 어떻게 하나 그 애를 키워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일점 혈육마저 전쟁시기 폭격에 희생되었다.

우리 혁명의 행군로를 피로써 개척한 조선혁명군 대원들의 업적은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들의 영웅적 투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그들이 흘린 성스러운 피의 대가로 이 세상에 상비적인 혁명무장력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끝)

파발혁명전적지에 세운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동상

일화

일당백

1995년 4월, 건군절을 앞둔 어느 날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신념이 강하여야 하며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게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입니다. 혁명가들은 혁명의 수령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라야 하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전 쏘련원수이며 3중영웅이였던 쥬꼬브에 대하여 들려 주시였다.

1957년에 어느 한 극장에서 쏘련문화성의 주최로 명배우들의 예술공연이 있었다. 당시 국방상이였던 쥬꼬브도 초대석에 앉아 있었다. 공연시간이 박두하여 흐루쑈브가 위세를 돋구며 극장안에 들어 섰다. 관람군중은 물론 간부들모두가 자리에서 일어 나 례의를 표시했다. 그때 쥬꼬브만은 공연순서표를 뒤적거리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흐루쑈브에 대한 그의 평소감정의 연장이였다. 오래동안 쓰딸린에게 충실해 온 그는 애초부터 수정주의두목인 흐루쑈브를 바로 보지 않았다. 그는 군중대회를 비롯하여 행사장에서도 흐루쑈브가 나왔다고 하여 박수를 치며 환호를 올리거나 례의를 표시하는 법을 몰랐다.

그날 공연을 보고 돌아 온 흐루쑈브는 전화로 쥬꼬브를 찾아 ≪당신은 … 내가 극장에 들어섰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냥 자리에 앉아 있더구만.≫이라고 위협조로 따지고 들었다.

그러나 쥬꼬브는 천연스럽게 ≪난 요즘 좌골신경통이 도져서 앉았다 일어 섰다 하기가 매우 끔찍해요. 그저 그뿐인데 대답이 만족하겠는지…≫라고 하였다.

그 이듬해 쥬꼬브는 흐루쑈브에 의해 공직에서 철직되였는데 그때조차 빌붙거나 굴복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시고 나서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쥬꼬브처럼 당장 목이 떨어 지는 한이 있더라도 권력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 수령에 대한 신념과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장군님께서는 1996년 4월 어느 날에도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이 혁명을 하느라면 힘에 부칠 때도 있고 주저할 때도 있을수 있습니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그때마다 나에게는 당이 있다, 나는 당의 혁명전사다, 내가 설사 이 길에서 죽는다고 하여도 당은 나를 붉은기폭에 싸안아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 줄것이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이런 신념을 지니지 않고서는 멀고 험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 나갈수 없으며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할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 신념의 억센 기둥을 심어 주시고 그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키워 나가시였다.

김정일장군의 산악 같은 신념과 의지는 이북의 사회주의를 지탱하고 승승장구하게 하는 정신적지주로, 인민군대를 세계최강의 강군으로 키운 사상적에너지로 되고 있다. 장군님께서 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난국을 헤쳐 나가지 않으셨더라면 이북이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그 모진 시련을 이겨 내고 오늘과 같이 강성대국건설의 지평을 열수 없었을 것이다.

송가

통일의 장군

북과 남 삼천리 일만산줄기
한품에 안고서 높이 솟은 산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닮아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분
아- **김정일**장군 아- 통일의 장군
북과 남 따로 없이 품어주시는
김정일장군

북과 남 삼천리 방방곡곡을
어디나 골고루 비치는 태양
만물에 생을 주는 태양과 같이
우리 겨레 따뜻이 보살피시는 분
아- **김정일**장군 아- 통일의 장군
북과 남 따로 없이 품어주시는
김정일장군

흠모

위대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

한민전 평양대표부를 방문했던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기 듀프르 서기장의 발언 중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한반도에는 자주통일을 위한 전환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는 한평생 수많은 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며 조선의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빛나게 관철해나가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의 결실이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정치실력으로 위대한 주석님의 통일사상과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고 변천하는 정세에 맞게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를 떠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발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에 관한 보도가 발표되었을 당시 서방언론들은 북남수뇌분들의 만남자체만 의의를 두면서 남북정세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평양상봉은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의 결과물을 낳았다. 6.15공동선언은 정말 사변적인 선언이다. 지난 시기 이남의 군부독재정권시절에도 북과 여러 차례 회담들이 있었고 성명과 합의들이 이루어졌지만 6.15공동선언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는 사상 처음이다. 선언에 반영된 자주통일사상과 연방제통일사상, 화해와 단합사상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공동선언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사상과 방침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를 이남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세계와 민족앞에서 그 실천을 약속하였다는데 거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정녕 세기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한반도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애국애족의 대용단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6.15공동선언을 높이 든 조선민족의 오늘의 통일운동은 자주의 기치밑에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루려는 자주통일의 대진군이다.

이 거세찬 자주통일과 민족대단결의 흐름은 명실공히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자주정치의 거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펼쳐진 것이다.

이는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전과정을 목격하고 21세기 세계자주화위업과 조선민족의 통일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자주의 상징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도도히 전진하는 조선민족의 오늘의 자주통일대진군을 지켜보고 있는 세계양심의 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지금 6.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민족의 새 세기 통일진군은 과거 반세기이상이나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 막아온 역사의 반동들의 악랄한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구시대적인 대북강경정책에 힘입은 이회창을 비롯한 이남의 반통일세력은 때를 만난 듯이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공세를 펴면서 공동선언이행에 각방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들어 이남의 수구반통일세력들은 재야합하여 과거 냉전시대의 반공광풍을 연상시키는 ≪통일축전파동≫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아도 6.15공동선언이행에 불성실한 이남당국을 더러운 정파싸움에 끌어넣으면서 세계와 민족앞에 약속한 6.15공동선언이라는 민족통일의 대의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통일위업의 승리는 곧 미국을 비롯한 반통일분열주의세력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철저히 짓부실 때라야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 통일운동의 어제와 오늘이 보여주는 역사의 진리이다.

오늘의 통일정세는 남과 북의 전 민족이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일치단결하여 통일애국역량의 압도적인 우세로 반통일매국세력의 방해책동을 좌절시키고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내외반통일세력의 분열책동을 짓부수는데서 이남의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의 투쟁이 차지하는 몫은 대단히 크다고 본다.

우리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성원들 역시 미제를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분열책동 분쇄를 주되는 과제로 틀어쥐고 나갈 것이다.

미군철수와 6.15공동선언의 실현, 이것이 우리 조직의 현 투쟁목표이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실현을 위해 싸우는 한민전과 이남민중의 투쟁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다.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족 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애호인류의 일치한 소원이다.

우리는 남과 북의 민중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고 6.15공동선언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20주년에 부쳐

이동욱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1일

오는 3월18일은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이 있은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는 우리 각계층 민중은 20년전 애국에 불타는 청년학생들이 단행한 반미투쟁의 당위성과 의의를 다시금 돌이켜 보며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이 땅을 불법으로 강점한 미국은 한국의 ≪우방≫으로 오랫동안 분식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식민지통치과정을 통해 우리 민중은 미국이 한국의 ≪해방자≫도, ≪우방≫도 아닌 침략자, 약탈자이고 식민지지배자이며 모든 민족적 고통과 불행의 화근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의 참가자인 문부식씨는 방화의 동기에 대해 ≪군부독재를 가능케한 12.12사태를 지원 묵인한 것, 광주시민대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 미국잉여농산물 거래사건, 미8군사령관 위컴과 주한미대사 워커의 한국민중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행동을 하게 했다≫면서 ≪우리들의 역사에 있어서 잘못된 모든 정치악 속에 언제나 미국이라는 시어머니가 이 땅의 독재자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백주에 방화라는 수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미국에 벌을 가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었다.

그의 진술은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5.18광주민중봉기자들을 무쇠주먹으로 진압하라고 전두환군부파쇼교형리들을 내몰고 한국민을 ≪들쥐≫로, 애국청년학생들을 ≪철없는 애새끼≫들이라고 모독한 미국놈들에 대한 우리 민중의 원한과 분노를 대변한 것이다.

사실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나라의 분단도, 6.25전쟁도, 군부파쇼독재도 없었을 것이다.

문부식, 김현장, 김은숙, 유승렬, 이미옥, 김진희씨 등 정의와 애국에 불타는 청년학생들이 ≪미국은 더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한반도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미국의 죄행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착취를 규탄한다≫등의 반미전단을 시내 곳곳에 뿌리고 시내 중심에 도사리고 있는 미문화원에 불을 지른 것은 더없이 의로운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각계 민중의 반미자주의식을 고양시키고 미국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우리 민중의 반미항전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장식한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날의 애국적 청년학생들이 높이 치켜들었던 미국식민지통치청산과 양키고홈, 내정간섭중지 등의 외침과 요구는 오늘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호전적인 부시정권은 한국의 영구강점과 식민지적 수탈강화음모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단합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혈안이 되어 있다.

부시는 ≪악의 축≫론과 대북강경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으며 몇년후이면 퇴역될 40억달러상당의 F-15기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현실은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참가자들이 치켜들었던 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높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자주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민중은 ≪악의 축≫발언과 대북강경발언 등으로 한반도정세를 긴장격화시키고 대규모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여 전쟁분위기를 확대시키며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온 겨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부시반대투쟁에 한사람같이 동참해 나서야 한다.

부시는 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 옮기려는 장본인이며 우리 민중들을 죽음과 절망에 빠뜨리는 주범이다.

노동자, 농민, 학생, 종교인, 시민 등 각계층 민중은 지난 2월 부시의 방한시에 보인 반부시투쟁의 강도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각계민중은 이 땅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철수투쟁과 6.25양민학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과 주한미군기지철폐투쟁, 주한미군범죄근절과 한미소파반대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각계층 민중은 이회창과 같이 부시에게 빌붙어 대권을 노리며 민족의 안녕과 번영보다 학살자, 인간백정집단인 미국의 이익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분자들을 용서치 말아야 한다.

모두다 반미항전의 불길을 높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을 돌이켜 보는 오늘의 의미이며 민중의 결심이기도 하다.

화염에 휩쌓인 부산미문화원(1982.3.18)

외세공조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을 이룩하자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6일~17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외세공조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을 이룩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외세와 공조해서는 안됩니다. 외세는 우리 나라 분열의 장본인이며 조국통일의 최대의 방해꾼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분열은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국세력에 의하여 강요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우리 나라 문제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의사에 배치되게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되고 미국이 이남땅을 강점한 결과 우리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였습니다.

사실 조국통일이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 것을 다짐한 6.15남북공동선언은 7천만 겨레와 세계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아직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행을 백방으로 방해해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용무력감축이니 미사일문제니 하면서 그 무슨 강경정책으로 이북을 압살해보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려세우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은 지정학적 핵심지역인 한반도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이행되면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미국은 화해와 단합의 길로 들어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대결과 전쟁의 불꽃을 튕기려 하고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발언도, 그의 서울행각도 미국의 이러한 속셈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을 희생시키려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으로 인하여 오늘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이 엄중한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외세와 공조해서는 결코 조국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민족공조를 이룩해야합니다. 그것은 조국통일운동의 담당자가 우리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 당사자도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입니다. 민족내부문제는 그 내용과 성격이 어떠하든지간에 반드시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로 하여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문제에 철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도,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당사자들도 다 다름아닌 우리 겨레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통일의 주인으로, 당사자로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민족공조로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할 근거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을 비롯한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은 미국의 침략책동에 추종하여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고 안보니 공조니 하면서 외세의존과 남북대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추에 용서못할 민족반역행위입니다.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이 외세와의 공조를 더 중시하며 외국에서 일어난 일을 걸고 이북을 겨냥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무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엄중한 상태에 빠뜨렸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족내부의 반통일세력들은 이달에 들어와서도 이북을 겨냥하는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같은 반통일세력의 외세공조책동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공조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해야합니다. 바로 여기에 6.15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습니다.

부시의 서울행각을 전후하여 전개된 각계 우리 민중의 전례없는 **반미투쟁이 보여주듯이 외세와의 공조를 반대배격하고 우리 민족공조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7천만 겨레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통일을 바라는 각계 민중은 외세공조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운동에 하나같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외세의 이기적 목적에 의해 우리 민족, 우리 강토가 두 부분으로 동강나게 됐죠. 외세는 지금도 저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우리 나라의 영구분열을 꾀하고 있고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세와의 공조를 운운하는 자들은 통일을 하지 않으려는 매국역적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겁니다. 민족공조만이 통일의 참된 길임을 잊지 말고 민족대단결을 위해 모든 걸 다바쳐야 할줄 압니다.

변하지 않은 부시의 전쟁광신적 본색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6일~17일

부시의 악의 축망발이후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 물끓듯하고 있는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이북강경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도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명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당국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도 부시의 한국행각으로 한반도의 긴장한 정세가 마치 완화된 듯이 말하거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태의 본질을 깊이 투시해보지 못한데로부터 나온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실적 감각, 정세적 감각이 무딘데서 나온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시의 행각으로 한반도정세가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부시의 한반도강경정책, 대북적대시정책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한반도정세가 긴장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시의 한국행각후 그를 환상적으로 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건 일부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매우 경계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진명 : 옳은 말씀이예요. 부시는 한국행각시 북과 전쟁할 의사가 없다느니 미국은 북과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느니 당국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느니 하고 떠들었고 도라산역에 가서는 침목에 한민족 하나되길 바란다는 글을 써넣었어요. 일부에서는 부시의 이런 간교한 작태를 두고 부시의 대북정책, 한반도정책이 마치 달라진 듯이 떠들고 있고 일부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 예리한 안목으로 부시의 망언을 분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상적으로 대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부시의 간교성을 보려하려 하지 않거나 모르는데서 나온 거죠.

사회자 : 한국행각시 부시의 언행들을 주시해보면 부시의 광신적인 본색은 조금도 변함게 없고 오히려 한반도강경정책, 대북압살책동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유진명 : 그렇습니다. 부시는 한국행각시에도 광신적이고 오만한 작태를 그대로 드러내놓았어요. 그는 주한미군부대에 찾아가서 악의 축망언을 줴쳐대면서 미군침략세력에게 전쟁열을 부추겼고 또 당국자들앞에서는 북이 어둠의 세계라느니 북이 투명성을 갖추기 전에는 북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느니 북의 대량살상무기 등 현안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느니 하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망발까지 늘어놓았죠. 부시의 악의 축망언은 우리 민족은 물론 전세계를 격분시켰잖아요. 부시의 이 호전적인 망언은 사실상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온 세계가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시는 이 땅에 기어들어서까지도 악의 축망언을 거리낌없이 또다시 줴쳤던 거죠. 북을 어둠의 세계라고 한 부시의 망언은 북의 체제,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용납못할 궤변이라 할 수 있어요. 부시가 투명성문제를 운운한 것도 호전적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부시는 이미 전부터 있지도 않은 북의 핵문제를 걸고들며 검증이요 투명성이요 뭐요 하면서 북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죠. 그런데 이번 한국행각시 이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온겁니다. 부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응정책추진에 대해 떠든건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유린행위죠. 한미동맹에 기초해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 바꾸어말하면 이 땅을 계속 핵무기로 짓밟고 있으면서 북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는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밖에도 부시의 광신적인 본색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이 몇가지 사실만봐도 부시의 대북정책, 한반도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회자 : 부시집단은 한국행각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악의 축망언을 되풀이하면서 북에 대한 압살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죠.

유진명 : 부시와 그 호전집단은 북의 체제와 제도를 걸고들면서 체제와 제도의 변화를 떠들고 있어요. 북의 체제와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 우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깡패집단인 부시정권이 감히 북의 자주제도를 걸고든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의 인권문제, 종교문제까지 또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부시집단의 북에 대한 압살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계선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거라고 봅니다.

사회자 : 당국자들은 부시의 행각으로 한반도문제, 북미간의 문제도 풀릴거라고 떠들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이에 환상적으로 대하거나 기대를 거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 이건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유진명 : 앞에서도 얘기됐지만 일부 사람들은 부시의 간교한 궤변에 귀를 기울여 부시의 전쟁광신적 본색이 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이건 부시의 광신적 본색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부시가 떠든 악의 축망언과 북과 전쟁할 의사가 없다고 한 궤변은 인맥상통한 겁니다. 악의 축이라는 선전포고를 해놓고 북과 전쟁을 안하겠다는 건 말도 되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죠. 미제와 이 땅의 군부당국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대규모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이기로 했어요. 이 전쟁연습이 북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인거예요. 이것은 부시가 떠든 북과 전쟁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궤변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부시가 북과의 대화문제를 운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시는 조건있는 대화, 말하자면 미사일문제, 핵문제, 생물화학무기문제를 대화의 기본조건, 기본전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북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걸 말해주는겁니다.

사회자 : 부시는 마치도 한반도문제를 남과 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떠들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 한반도문제를 남과 북이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막으려는 검은 속셈을 가리우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진명 : 옳아요. 우리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가장 우려하고 가로막고 있는건 바로 부시호전집단이예요.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을 반영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노골적으로 반대해 나선 것은 부시호전집단이죠. 그리고 6.15공동선언발표후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하던 것이 지금처럼 경직상태에 놓이게 된 것도 그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시호전집단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꺾으려고 온갖 책동을 다 하고 있죠.

사회자 : 우리 민중은 부시의 전쟁광신적인 본색을 똑바로 알고 부시의 전쟁책동 반통일책동을 반대해 나서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진명 :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부시호전집단에 어떤 환상이나 기대도 가져서는 안돼요. 부시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는 민족공멸을 가져오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부시의 대북전쟁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분쇄해버려야 할거예요. 북이 있어야 이남도 있고 북이 있어야 우리 민족이 있는 겁니다. 부시호전집단의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는 시시각각으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것을 무심히 대해서는 안됩니다. 악의 화신인 부시의 호전적인 본색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고 그가 권력의 자리에 있는한 한반도의 긴장한 정세는 절대로 완화되지 않아요. 국민모두가 부시의 광신적인 본색을 똑바로 보고 양키침략자들과 사생결단으로 싸울 각오를 굳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미국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라의 통일도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게 돼죠.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늑대가 양으로 변할 수 없고 미국의 침략적 체질 역시 변할 수 없다는 것 잊지마시고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겁니다.

도라산역을 두고

국군장병들에게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6일~17일

우리 나라 옛속담에 병주고 약준다는 말이 있지만 세상에는 병주고 그것도 모자라 괴로움과 고통을더해주는 악마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번 방한시 최전방 도라산역에 나타나 우리 민족을 모독하는 글을 쓴 부시미대통령이라 하겠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를 규탄하는 대구에 사시는 최종호씨의 글 ≪도라산역을 두고≫ 임기수씨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두해전까지만해도 휴전선 도라산 인근 최전방초소에서 군생활을 했다.

지금은 고향인 대구에서 막일을 하면서 전국연합대구지역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선배님들의 지도하에 미군철수투쟁과 국보법철폐투쟁 그리고 통일운동에 몸담아 온 나날들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케한다. 더욱이 동족에게 총구를 겨누고 군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됐던 군생활의 나날들을 부끄럽게 느끼고 있다. 나 하나만이 아닌 이 땅의 청춘들이 당해야만 하는 이런 수치는 바로 미국침략자들이 가져다준 전사품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내가 군생활을 하던 도라산일대에 미대통령 부시가 왔다갔으니 나는 더없는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부시가 도라산역 침목에 써놓았다는 글의 내용을 듣고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부시는 침목에 ≪한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느니 ≪이 철도로 한국의 이산가족들이 다시 합쳐지기 바란다≫느니 하는 글을 썼다고 한다. 실로 이것은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악한은 바로 미국이 아닌가. 수수천년 단일민족으로 하나의 말과 풍습을 가지고 살아오던 우리 민족. 그 단일민족의 역사를 철추로 내리찍고 불행과 고통의 시련의 강요하던 악의 제국의 왕초가 감히 우리 민족을 야유한 것이다. 이것은 실로 저들에 의해 초래되고 저들의 강요로 인해 세기를 넘기면서까지 세계 유일 분단민족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다.

이산가족이라는 말도 유독 세상에 우리 민족에게만 남아 있는 불행의 대명사인줄 안다. 침략자, 약탈자 미국이 아니였다면 우리 민족은 이산가족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화목하게 살아왔을 것이다. 미국이 아니였더라면 남북 이산가족들은 정기적인 왕래를 하면서 상봉의 기쁨도 나눴을 것이다. 이 땅에 이산가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미국. 그 만남조차도 방해해나서고 있는 악의 화신 부시가 감히 천만 이산가족을 우롱하다니.

나는 도라산역 침목에 우리 민족 모독의 글을 쓴 부시의 작태에서 살인자, 날강도가 피를 보며 너털웃음을 짓는 흉악한 몰골을 본다. 그렇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이고 야유이고 궤변이다. 하다면 이것이 과연 단순한 궤변이겠는가. 아니다. 여기에는 보다 악랄하고 위험천만한 저의가 깔려있다.

결국 부시는 이북을 먹어치우고 미국 지배하에 이른바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정말 몸서리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명백히 북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악의 축발언의 실체를 선포하는 북침전쟁선전포고이다. 전쟁광신자 부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원수, 최대의 살인악마, 악의 왕초이다.

도라산은 자기 역사에 가장 더러운 흔적을 남긴 악의 왕초 부시를 저주한다. 도라산과 인연있는 나도 부시를 규탄한다. 아니 온 이남 땅이 반부시반미항전에 총궐기하고 있다.

국군장병여러분은 총구를 동족에게가 아니라 양키침략자들에게 돌려대고 동족압살을 강요해온 미국에 철추를 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부시의 변명

≪핵태세검토≫보고서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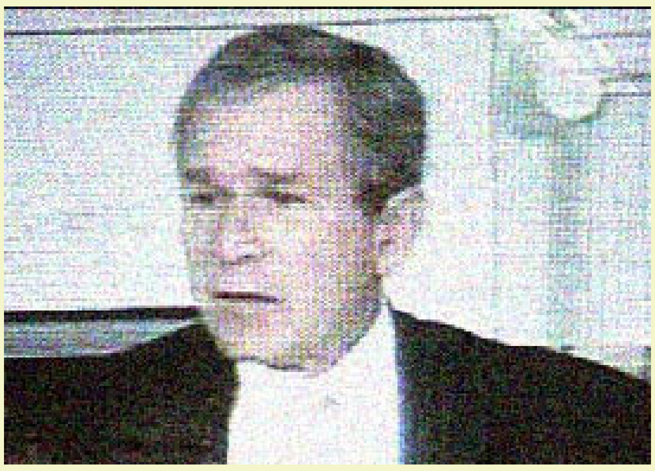
미국은 최근 이북, 러시아, 중국,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사용 공격계획을 마련하고 일정한 전쟁상황에서 사용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개발을 지시한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부시는 13일 지난해 10월 11일이후 9개월만에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클린턴행정부때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느니 뭐니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이것은 부시가 해당 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에서 벗어나보려는 교활한 술책의 일환입니다.

부시는 공식기자회견에서 핵태세검토보고서내용을 변명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를 잠재워보려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이북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핵무기를 선제공격 및 전쟁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조금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잠재적 핵공격대상국으로 이북, 이라크, 이란 등 이른바 ≪악의 축≫ 3개국을 포함한 7개국을 지명하고 있고 특정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욱 정교하고 작은 핵무기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방의 핵무기는 악이고 자신의 핵무기는 선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북의 곳곳에 핵공포를 확산시켜도 된다는 강도적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악의 제국이고 핵광신자입니다.

미국의 권위있는 핵무기전문가 아크는 미국의 ≪핵태세검토≫라는 비밀보고서가 끔찍하고 새로운 핵전쟁******* **하



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협의회 회장 이사크는 부시행정부가 지금 핵참상의 문턱을 낮추고 있으며 그들이 필사적으로 새로운 핵무기사용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미국방부안에 전면핵전쟁수립용의자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야말로 핵위협의 장본인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수라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부시는 그 어떤 변명으로써도 이북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핵공격을 가하려는 범죄적 흉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부시는 핵태세검토보고서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느니 뭐니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 전가시켜보려고 책동할 것이 아니라 핵우위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부시행정부가 내외여론의 정당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고 그 재앙이 미국에도 도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부시집단이 권좌에 있는한 우리 민중은 핵공격위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핵반미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창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공세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6일~17일

통일운동가 김영호씨의 글 ≪이회창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공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규씨입니다.

색깔론공세는 역대 통치배들이 위기의 철때마다 상투적으로 써오던 추악하고 비열한 행위이다. 하기에 그것은 매번 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색깔론공세는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총재라는 이회창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공세를 계속 펴고 있어 국민각계의 지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7천만의 온 겨레가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하며 커다란 환희에 넘쳐 있을 때 유독 이회창은 이면합의설, 달러제공설, 북한불변론을 유포시키며 색깔론공세를 했다.

지난해 8.15를 계기로 평양에서 분단사상 처음으로 가장 광범위한 범위에서 남과 북, 해외의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축제행사를 벌일때에는 대북굴욕외교, 눈치보기의 감투를 씌우다못해 무슨 돌출사건을 만들어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이 땅에 신매카시즘선풍을 몰아왔다. 그리고 북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국세청의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서까지 북의 관변단체, 홍위병으로 매도하며 시민단체들과 민주인사들을 중상모독했는가하면 무슨 사전정비작업 운운하며 악랄하게 남북대결을 고취했다.

이회창이 기회있을 때마다 떠드는 퍼주기론도 뒤집어놓은 색깔론이다. 그는 걸핏하면 국민의 혈세를 퍼주기요 대북사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와는 달리 왜곡과장된 것이고 퍼주기라는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이름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차단하고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려는 추악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퍼주기라는 감투를 씌운 것은 국민기만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이 진짜 퍼주기를 하는 것은 어디겠는가. 한국은 미국의 군수독점체에 집중적인 퍼주기를 하고 있다. 군전력증강5개년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30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있는데 차세대전투기와 차기대공미사일, 육군 차세대공격용헬기사업 등에 10조원대가 퍼부어지는 것이다. 이 차세대전투무기들은 대체로 미국산 전쟁장비들로 확정되고 있다. 그러니 한국은 미국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리워주기 위해 명분도 없는 전쟁장비들을 대량 끌어들이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미국에 펑펑 퍼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로 퍼주기 하고 있는 것은 모른체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데 대해서는 집요하게 퍼주기론을 퍼뜨리는 이회창이야말로 얼마나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노인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패트리어트미사일도입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등장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 공포되었을 때 이회창은 한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은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무용지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비공개자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을 되풀이했다.

이회창은 그후 측근들을 사주해 미국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그 실천에 나섰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이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무기체제를 운용하는 구식군대라고 하면서 새로운 무기구매에 열을 올리게 했다. 미사일사기극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지난해말부터 한국군이 보유한 나이키지대공미사일의 성능을 들러싸고 사기극이 연출된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나이키미사일의 성능을 검토한 결과 영하50도에서 가동율이 8%불과하다는 결과를 조작발표했다. 100기의 미사일중에서 92기는 고철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창안품이다. 이회창패당이 이 수치를 근거로 한국의 영공이 완전히 무너진 듯이 떠들었고 보수언론을 부추겨 확대왜곡하게 했다. 그들 자체는 관계당국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색깔론공세를 들이댔다. 그러나 한국의 영공이 무너져버렸다는 이회창패당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방공무기로는 나이키미사일만이 아니라 중거리방공미사일로 **미사일과 최근 개발이 완료돼 야전에 배치된 천마, 패가수스마사일이 있다. 장거리방공무기로는 40미리미터 기관포를 장착한 비호가 있고 수도권방어의 핵심은 발칸과 보티콘이 있으며 자브린, 싱거, 미스트랄과 같은 휴대용 방공미사일도 대량 가지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이 마감중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공이 무너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회창패당의 주장은 미국의 첨단무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모략극이다. 그 첨단무기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패트리어트미사일이다.

이회창이 색깔론공세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막대한 국민혈세를 미국에 섬겨바치고 미국의 신임을 얻어 권좌를 차지해 미국의 첨단무기들로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데 있다. 이회창의 색깔론공세가 이쯤되고 보면 그것이 몇몇 사람을 중상모독하고 헐뜯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재앙을 덮씌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자가 권좌를 차지하면 우리 민중의 생존의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 우리 민족은 전쟁의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각계 민중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공세로 민심을 혼란케하고 민족재난을 가져오려는 이회창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16일

김정일영도자 칭송 재야인사 한성호씨

서울 종로구에 사는 재야인사 한성호씨가 광화문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이북 **TV**프로그램을 본 소감을 묻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북 **TV**를 볼때마다 제일 감명깊은 것은 매 프로마다에 자기 영도자에 대한 민중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숭배심이 대하로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다. 이것은 지구촌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특출한 정치지도력의 과시로 된다.≫

한씨는 계속해 **김정일**영도자님의 민중사랑의 정치에 대해 강조한 다음 미국이 제아무리 대북강경정책을 쓰고 있지만 하나로 똘똘 뭉친 이북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나는 무적필승의 이북앞에 미국이 무릎을 꿇고 항복서를 바칠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김정일**영도자님을 충성으로 우러러 따르며 받들자고 말해 동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미 핵태세검토보고서 규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해 최근 미국언론에 공개된 미국방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저들의 세계지배야욕을 위해 인류의 파멸을 부르는 선제핵공격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하는 부시의 호전성과 패권성에 경악과 분노를 표시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핵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한반도 나아가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원흉임을 선언한다며 부시가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전면 폐기하고 북미기본합의문과 북미공동커뮤니케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도 지난 11일 미국은 북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이번에 보고서는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파괴자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민족을 공멸로 몰아넣으려는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국민들과 7천만 겨레는 미국의 침략적 본성을 똑바로 보고 있으며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핵무기를 걷어가지고 이 땅에서 즉각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법안 마련하기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은 13일 일제하에서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은 민주당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서상섭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법률추진단에 법조계인사들을 참여시켜 법률초안을 마련하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관련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주와 바람직한 청산방향 등을 규정할 예정이며 국회와 행정부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모임측은 밝혔습니다.

이회창의 정치는 봉이 김선달식정치

민주당의 이낙연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재산공개에서 세비와 국민연금을 넘겨 8600만원이 늘었다고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에 대한 이회창총재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대변인은 국회의원의 한해 세비수령액이 7000만원인데 이총재가 지난해 최고급 자동차를 사고도 그 이상의 돈을 저축했다는 것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진 한나라당 예산으로 생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남의 집을 공짜로 쓰고 살면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정치를 하고 세비를 저축하는 이총재의 정치를 봉이 김선달식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현 사태의 책임은 이회창에게 있다

한나라당 김덕룡의원과 홍사덕의원은 14일 최근 일련의 혼란스러운 사태의 책임은 이회창에게 있다면서 지금은 이총재와 만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덕룡의원과 홍사덕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사태는 이회창총재의 1인지배 정당구조와 독선 그리고 공인으로써의 명쾌하지 못한 처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규탄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발표해 대규모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이려는 미국과 군호전집단을 규탄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성명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남에서 벌이는 이번 통합군사훈련은 북침을 위한 계획적인 전쟁도발전주곡이며 핵전쟁의 서막이라며 이를 강력히 단죄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이남의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들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내외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소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미반전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6일

김정일총비서께 빠리 국제회의참가자들이 편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지가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빠리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통일에 관한 토론회,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창립 25돐 기념집회,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참가자들의 명의로 10일 채택되였다.

편지는 토론회참가자들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심으로써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불멸의 공적을 쌓으신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조선통일의 원칙과 방도들을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을 묶어 세워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각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편지는 지적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는 이번 행사들을 통해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에 난관을 조성하여 조선의 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을 보다 광범히 전개해나가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편지는 지적하였다.

편지는 회의는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반대하며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국제적항의깜빠니야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편지는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김정일**령도자각하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진행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가 10일 빠리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국제련락위원회 일군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정당,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를 통보하였으며 국제련락위원회의 지난해사업을 총화하고 올해과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 한 보고에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프르는 최근 조선반도의 정세에 언급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각하께서 시대가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론리와 정력적인 실천활동으로 명확한 해답을 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지난해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언급하고 그 어느때보다도 극도에 달한 부쉬정권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도 조선인민을 놀래우지도 굴복시키지도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지난해에 국제련락위원회가 조선민족끼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립장과 노력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불러 일으키는데 중심을 두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국제련락위원회 창립 25돐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2002년 행동강령이 채택되였다.

행동강령은 조선의 자주적통일뿐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새로운 환경을 마련한 6.15북남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국제공동체가 이 선언이 성실히 리행되도록 적극 활동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행동강령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각하께서 조선통일운동사에 쌓아 올리신 업적에 대한 소개선전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극 벌려 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을 광범히 벌려 세계적판도에서 크게 떠들도록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행동강령은 또한 미국의 대조선강경압살정책과 남조선에서의 무력증강책동, 남조선의 ≪주적론≫, ≪보안법≫, 외세공조책동 등을 폭로규탄하는 활동의 도수를 높이며 분렬의 상징인 콩크리트장벽을 해체시키기 위한 련대성활동을 적극 벌릴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미국로동자세계당 성원이며 미국은 조선에서 물러가라위원회 위원장인 브라이언 벡커가 국제련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되였다.

남조선에서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규탄
직총중앙위원회 성명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미제침략군의 주도하에 남조선에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15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합동군사훈련이 통합되여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이번 통합군사연습은 전례없이 위험천만한 북침핵예비전쟁으로서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이 실천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벌려 놓으려는 이번 통합군사연습을 철두철미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계획적인 전쟁도발전주곡으로, 핵전쟁의 서막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끝끝내 우리 나라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직업동맹원들은 영웅적인민군대와 함께 한전호에서 침략자, 도발자들과 결사항전을 벌려 놈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해 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미국의 핵탄두를 장비한 땅속관통무기 개발을 비난

≪로동신문≫ 16일부는 얼마전 부쉬행정부가 ≪지하대상물을 파괴할수 있게 핵탄두를 장비한 땅속관통무기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3년간의 연구사업을 진행할것≫을 명령한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미국국가핵안전행정당국 책임자 고든은 국회 하원에서 한 증언에서 미국이 앞으로 10년동안 여러 종류의 미싸일들에 장약할수 있는 핵탄두를 새롭게 갱신하는데 총력을 돌리게 될것이라고 공개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미국의 이 목적에 대해 최근 미국무성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볼튼이 ≪워싱톤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비핵국가에도 핵선제타격을 가할수 있다고 서슴없이 뇌까린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볼튼의 폭언은 부쉬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최근 폭로된 미국방성의 ≪핵태세검토≫비밀보고서에 의하면 부쉬행정부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중국을 비롯한 7개 나라들을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한정핵공격≫을 위한 소형전술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모든것은 미국이야말로 핵위협의 장본인이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는 미국과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맞설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이 주제넘게 떠들고 있는 행동의 권리는 미국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를 목표로 로골적인 핵공격위협을 가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이것은 우리의 응당한 자위적권리이다.

미국은 함부로 날뛰지 않는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미국의 침략적핵략에 대해 폭로

≪로동신문≫ 16일부는 미국의 악랄한 침략적핵전략에 대해 폭로한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최근 미국이 로씨야와 중국 그리고 우리 공화국과 수리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를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한정핵공격≫을 위한 소형전술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랭전종식후에도 핵전략을 변함없이 패권주의, 세계제패를 위한 관건적요소로 내세우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미국이 핵무기를 그 누구의 ≪공격≫과 ≪위협≫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묘사한것은 저들의 핵전력증강과 핵전략실현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것이다.

인류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핵전쟁책동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첫 원자탄시험이 호전광 루즈벨트에 의하여 구상되였었고 원자탄무기연구제작에 박차를 가한 트루맨에 의해 원자탄시험이 진행된후 첫 원자탄이 일본인민들의 머리우에 들씌워 졌으며 조선전쟁마당에 떨굴수 있는 전술핵무기시험이 다그쳐 졌었다. 이어 아이젠하워에 의해 조선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여 원자무기를 사용할데 대한 음모가 22번이나 꾸며 졌었다.

그후 레간이 ≪전략방위구상≫이라고 내놓은 우주를 군사화하기 위한 ≪별세계전쟁≫계획과 이 계획의 변종인 이전 미국대통령 부쉬가 내놓은 ≪빛나는 조약돌≫, 그 변종의 변종인 오늘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 등 미국의 핵전략실현은 계속되고 있다.

현 대통령 부쉬는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핵우위를 이룩하고 미국 력대대통령들이 이루지 못한 침략목적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부쉬가 이번에 핵공격계획을 작성발표하도록 한것도 이러한 야망과 관련되여 있다고 신문은 까밝혔다.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는것은 자멸행위

≪로동신문≫ 16일부는 미제가 3월 21일부터 벌리려는 합동군사연습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된이래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합동군사연습가운데서 제일 규모가 크고 그 목적과 내용도 가장 침략적인 전쟁불장난이며 위험한 대규모북침공격작전연습이라고 까밝혔다.

자주의 흐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

로동신문론설 -주체91, 1월 16일

21세기의 의미 깊은 첫해를 보낸 인류앞에는 앞으로 가야 할 한세기 로정이 끝없이 펼쳐 져 있다.그 로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아직은 그 누구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앞날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그중 가장 심각한것이 21세기가 1극세계화시대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9.11사건≫이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미국에 대한 대기습사건으로 무서운 공포심과 긴장감속에서 얼떨떨해 있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추켜 든 ≪반테로≫의 구호밑에 급기야 모여 들었다.대국들사이에 존재하던 각종 갈등과 모순이 일시에 ≪반테로≫의 흐름속에 잦아 든듯하다.미국은 ≪9.11사건≫이후 특히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결속되는 시기에 와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나라들에 ≪테로≫의 모자를 씌우고 폭력으로 내리 누르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다극화의 방향으로 나가던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1극화에로 역행하는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하다면 21세기 세계자주화위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것인가.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순풍에 돛을 단것처럼 순조롭지 않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에 의하여 뜻하지 않게 가슴 아픈 손실도 입을수 있고 예상밖의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겪을수도 있다. 하지만 자주화에로 나아가는 력사의 발전방향과 시대의 흐름은 절대로 달라 질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력량관계가 착잡하게 얽혀 있지만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여도, 정세가 아무리 변하여도 달라 질수 없는것이 있다.그것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인 자주성이다.국제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고 력량관계가 변해도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끊임 없이 계속되기 마련이다.그 어떤 돌발적인 사태에 부딪치고 준엄한 시련을 겪는다 해도 그를 극복하고 전진해 나가는것이 바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다.

인류의 자주적지향이 얼마나 강렬한가에 따라 세계자주화위업의 전도와 승리가 담보된다.국제무대에서 예상치 않던 소용돌이가 일어 나고 국제관계가 좌왕우왕하는 오늘의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시대는 제국주의자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진보적인류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랭전후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1극화세계를 수립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그들은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군사적경쟁대상이 없어 진 변화된 국제적환경속에서 침략적군사력과 경제력의 우세에 의거하여 모든 나라들을 신식민주의지배체제에 얽어 매려고 하였다.

이것은 국제적인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다.대국들과 많은 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자기들의 발언권과 지위가 약화되는 반면에 특정한 렬강의 지배적지위와 독점권이 강화되는것을 막기 위해 세계의 다극화를 요구해 나섰다.대국들은 호상간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한편 자기 내부와 주위에 뻗치는 미국의 지배주의적마수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렸다.유럽동맹은 독자적인 신속반응무력창설을 다그치고 유로라는 새로운 지역단일화페를 내오는 등 정치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의 세력권에서 벗어 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였다.

발전도상나라들도 시대적추이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따라 나섰다.동남아시아나라들은 아세안을 확대강화하였고 아프리카나라들은 아프리카동맹을 창설하였다.

세계정치구조는 점차 다극화구조로 바뀌 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다극화흐름이 예사외의 국제적충격파를 안아 온 ≪9.11사건≫으로 흐트러 지게 되였다.하지만 그것은 일시적현상으로 되고 있다. ≪반테로전쟁≫을 장기화하고 확대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보면서 진의도가 무엇인가를 감촉하게 된 많은 나라들이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다.그들은 미국이 떠드는 ≪반테로≫의 리념속에 세계를 밟고 올라서서 ≪제왕≫으로 행세하려는 무서운 야망이 숨겨져 있다는것을 깨닫고 있다.

이로부터 세계의 다극화에 대한 국제적요구는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다극화가 세계의 평화보장에 유익하고 국제정세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된다고 하면서 그 실현을 주장해 나서고 있다. 로씨야는 발뜨해연나라들이 미국중심의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로씨야와 나토가 유럽안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정치20개국≫창설사업을 통해 자기 나라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려는 나토를 견제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고 있다.

앞으로 개별적인 대국들과 함께 지역별, 대륙별 기구, 동맹들이 독자적인 극들을 형성하기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가게 될것은 의심할바 없다.그로하여 미국의 세력권은 현저히 좁아 지고 지배적지위는 날이 갈수록 허물어 지게 될것이다.

미국은 21세기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서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20세기에 가장 포악하고 흉악한 침략국가, 지배주의세력으로 등장하였다.제1차, 제2차세계대전들을 통하여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미국은 손쉽게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자리를 차지하였다.제국주의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재편성되였다.미국은 서방세계에서 절대적우위를 확립한 전략적지위를 리용하여 힘에 기초한 세계지배전략을 로골적으로 추구하였다. 그로하여 미국은 오래전부터 반제자주력량의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되였다.

미국은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등 더는 수습할수 없을 정도로 곪고 썩은 사회적병집과 그로하여 심화되여 가는 내부위기, 더는 허리를 펼수 없을 정도로 걸머진 빚더미, 밖에서 가해 지는 세찬 반미투쟁으로 하여 1980년대에 들어 서면서 심각한 궁지에 몰리게 되였으며 그 지위는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그런데 쏘련의 해체와 동유럽지역에서 일어 난 사회주의붕괴사태가 기울어 져 가던 미국에 기력을 돋구어 주고 날개를 달아 준 셈으로 되였다.

미국은 세력균형이 허물어 지고 경쟁대상이 없어 진 랭전후 세계에서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악의 제국으로 솟아 올랐다. 힘의 위세를 뽐내며 군사적위협의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하고 ≪원조≫미끼를 던지기도 하면서 적지 않은 나라들을 자기 주위로 끌어 당겼다.그리고는 유엔까지도 밟고 올라 서서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와 간섭, 전쟁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벌리였는가 하면 크고작은 국제문제들과 지역적인 문제들에 일일이 코를 들이밀면서 미국식처방을 강압적으로 내리먹였다.

대국들과의 분쟁도 주저하지 않고 일으켰다.지난해만도 미국은 중미비행기충돌사건을 일으키고 로씨야와 외교관추방전을 벌렸으며 국제적협약인 ≪교또의정서≫리행을 거부하고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였다.

호전적인 부쉬정권이 발족한후 세계의 다극화와 인류의 자주위업에 도전하는 미국의 태도는 전례 없는 오만성와 무모성을 띠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결코 력사의 방향각을 결정할수 없으며 시대의 발전을 억제할수 없다.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강화될수록 세계인민들의 자주적지향은 더욱 강렬해 지고 있다.그것은 곧 반제반미투쟁으로 이어 지고 있다.높아 가는 세계의 다극화지향도 반제반미투쟁의 한 흐름이다.유엔인권기구와 유엔마약통제기구에서의 미국의 축출, 유엔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미국의 반꾸바결의안, 미국의 요격미싸일제한조약과 ≪교또의정서≫탈퇴와 미싸일방위계획추진에 대한 국제적반발 등은 보다 강화는 반미자주화운동과 미국의 고립의 일단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 미국의 내부위기는 심각하다.정보기술의 덕으로 ≪호경기≫를 누리던 미국경제가 파국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9.11사건≫은 미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미국경제에 의존하는 전반적자본주의경제체제를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미국이 ≪세계화≫를 통해 무제한한 시장확대와 지배와 략탈의 독점적국제질서수립을 노리고 있지만 그것도 파산의 운명에 처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이 ≪세계화≫흐름을 꾸며낸지 얼마 안되지만 그 후과와 해독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세계화≫로 하여 1990년대에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이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으로 하여 세계적범위에서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빛갈 좋은 기만적인 ≪세계화≫에 무서운 독이 있다는것을 알게 된 발전도상나라들은 물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반≪세계화≫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유엔총회 제56차회의에서도 ≪세계화≫의 불합리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나오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세계를 납득시키고 이끌만 한 옳바른 리념도 없으며 자체내부의 심화되는 위기를 극복할만 한 뾰족한 처방도 없다.제국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산 낡은 세력이며 력사의 퇴물이다.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제국주의에 비한 자주세력의 결정적우세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가 형성되여 나갈것이다.

위기에서 벗어 나는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미제는 ≪반테로≫의 구호밑에 무모한 국가테로, 침략전쟁의 길로 더욱 로골적으로 내달리고 있다.그들은 ≪반테로전쟁≫을 21세기의 새로운 ≪십자군원정≫으로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로 확대하며 장기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노예가 아니라 자주적인민으로 떳떳이 살아 나가는것을 강렬히 지향하는 인민이다.우리에게는 그 어떤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는 힘과 신념이 있다.그 힘과 신념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긍지와 자부심, 필승불패의 선군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군사중시사상, 선군정치는 변화된 오늘의 국제적환경,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혁명사상이고 정치방식이다.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방식은 지구상에 제국주의침략세력이 남아 있는 한 그리고 세계자주화위업이 실현될 때까지 항구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인 로선이며 정치방식이다.이런것으로 하여 우리의 군사중시사상, 선군정치는 21세기 자주성을 옹호하고 지향하는 나라들과 인민들의 투쟁의 무기, 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군사중시사상, 선군정치가 있기에 제국주의의 반공화국광풍이 그처럼 세차게 몰아 치고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이 그처럼 엄혹하였던 류례 없는 준엄한 나날에도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억세게 고수하고 전진시켜 왔으며 적들과의 심각한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안아 왔던것이다. 세계진보적나라들과 인민들은 작은 나라가 그 누구도 감히 범접 못하는 ≪유일초대국≫을 통쾌하게 후려 치면서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앞장에서 추동해 나가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탄복하며 그것을 따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방사업강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전략적목표로 제기하고 군사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 있다.남부아프리카지역, 독립국가협동체 등 여러 지역들과 기구에 소속된 나라들속에서 집단적안전구조를 형성하거나 집단적무력을 창설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군사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관심을 높이며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는것이 21세기 새로운 국제적추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군사중시, 선군정치가 더욱 커다란 견인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세계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가 공감하고 따르고 있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군사중시사상, 선군정치는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만드는 만능의 보검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의 튼튼한 담보이다. 21세기 자주세력은 제국주의가 제일 두려워 하는 선군정치라는 가장 위력한 무기를 받아 안았다.

천재적인 예지와 령도예술, 무비의 담력과 지략을 지니시고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선군정치의 기치를 따라 나아가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은 승승장구할것이며 21세기 세계자주화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22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16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가 경제건설에 중요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당조직들은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이 당의 군사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민족의 대국상 이후 제국주의연합세력은 각종 군사연습의 많은 부분을 우리 공화국의 후방을 기습타격하는데 두고 있었습니다. 입체전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전의 특성과 적들의 기도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서 나라의 전반적 방위력을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민간군사조직인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의 대오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는 상비적인 정규무력과 함께 비상비적인 민간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민간무력이든지 정연한 군사조직체계에 따라 전민이 망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쏘련만 놓고 봐도 한 때 민병제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군사전략상 의의가 있는 그런 제한된 지역에만 국한시킨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1939년에는 폐지했습니다. 사실상 전민을 조직적인 군사적 역량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고 또 어느 나라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 조국의 운명을 자신이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정신에 의거하여 먼저 민간군사조직인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에 많은 사람들을 망라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1월 2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여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입대대상자들을 새로 입대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또한 민간무력 대오의 지휘성원들을 튼튼히 꾸리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2월 14일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방침을 통하여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의 지휘성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전투 대열을 더욱 확대, 강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의 지휘성원들을 준비된 일군들로 부단히 보충, 정비하여 우리의 민간무력은 자기 대오를 굳건히 유지하고 민방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모든 민방위 부대, 구분대들에 대한 유일적 지휘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지휘의 일원화와 중앙집권화는 군사조직의 본성과 군사행동의 특성으로부터 나서는 그런 필수적 요구입니다. 민간 군사조직인 경우 지휘의 일원화, 중앙집권화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간무력에 대한 유일적 지휘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각급 당조직들이 자기 단위의 민방위부대, 구분대들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는 그런 일원화되고 중앙집권화 된 지휘체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온나라 방방곡곡에 조직되어 있는 모든 민방위부대, 구분대들은 각급 당조직들을 통해서 전투정치훈련을 비롯한 민방위무력 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들을 최고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중앙집권적 규율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함께 최고사령관의 모든 명령, 지시들이 해당 지역이나 당조직들을 통해서 모든 부대, 구분대들에 전달, 침투되고 철저히 관철되는 그런 강한 제도와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무력에 대한 일원화되고 중앙집권화된 지휘체계가 확립됨으로 해서 전국의 민방위 부대, 구분대들이 당조직의 지도를 통하여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지휘체계가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한 민간무력의 싸움준비를 완성하시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먼저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의 훈련을 강화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훈련을 실속있게 하는 것을 민간무력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기본 고리로 내세우시고 당,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영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의 군사훈련강령과 훈련체계로부터 훈련방법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세가 엄혹하고 경제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민방위훈련을 늦추지 말고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주체86(1997)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민방위훈련을 좀 늦추었으면 하는 일부 일군들의 잘못을 깨우쳐주시면서 지금 농사에 힘을 넣으라고 하니 노농적위대 훈련을 그만두게 해 달라고 제기하고 있는데, 노농적위대 훈련은 나라의 안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경제형편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그만두면 안된다, 잠을 적게 자더라도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하겠다고 해야지 잠은 잠대로 자고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회의를 적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노농적위대 훈련까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패배주의적 현상이라고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먹겠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때에 아무리 경제형편이 어려워도 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것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일군들속에서 민방위 훈련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세우게 하셨을 뿐 아니라 훈련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선 훈련규율을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식량사정이 어려운 조건에 맞게 군사훈련조직을 더욱 짜고들어 훈련명령을 무조건 집행하는 것과 함께 훈련부문 일군들을 다른 사업에 동원시켜 군사훈련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민방위 훈련이 실지 싸움에 필요한 동작과 군사기술을 습득시켜 유사시 싸움마당에서 은을 내도록 그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방위무력 지휘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8월 민방위 훈련의 집행자들인 노농적위대의 소대장, 중대장들을 위한 강습을 도, 시, 군 단위로 여러 기회에 나누어 조직진행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주체87(1998)년과 다음해 상반년까지의 기간에 노농적위대 소대장, 중대장들에 대한 강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그들의 전투지휘 능력과 훈련집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한계단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88(1999)년 1월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이 해에 민방위사업 중심방향을 밝혀 주시면서 군사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과 함께 각종 훈련장들을 전투진지와 같이 잘 꾸릴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노농적위대 지휘관들의 전투조직과 지휘능력, 그리고 훈련집행 수준이 한계단 높아지고 훈련장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 민방위훈련의 질적 수준이 확고히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방위무력의 훈련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9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만나시는 자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매개단위, 매개 일군들이 실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행동방향과 질서를 다 알수 있게 배워주는 사업을 조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가 전투동원준비를 보다 완벽하게 갖추는데서 나서는 구체적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들은 유사시에 자기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연한 행동방향과 질서에 숙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인민군대와의 협동작전을 잘 할 뿐 아니라 자립적으로도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능히 쳐물리칠 수 있는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민방위무력은 전례없이 강화되고 민방위 구분대 장병들의 군사기술적 자질은 인민군 장병들 못지않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방위 무력의 모든 지휘관들은 방어전과 반돌격전, 반특공대전, 습격전, 매복전을 비롯해서 자기의 방어지역에 침입하는 적들을 소멸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싸움을 주체전법의 요구대로 조직지휘할 수 있는 만능의 지휘관들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 역시 누구나 각종 목표에 대한 명중사격 방법과 방위판정법, 적의 대량살육무기 타격시 행동조법과 재해소독법, 부상자 구급처치법을 비롯해서 실지 싸움에서 써먹을 수 있는 동작들에 완전히 숙련되여 있습니다.

그 언젠가 우리 공화국을 방문한 어느 한 나라 고위 군사 대표단은 붉은청년근위대의 처녀 대원 백 명이 모두 실탄 사격에서 우를 맞는 것을 보고 ≪사격술이 놀랍다. 어린 처녀들이 우리 나라의 정규군보다 총을 더 잘 쏜다≫라고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공화국의 민간무력의 전투력은 한층 강화되었고 온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리는데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 요새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한미군 범죄를 고발한다

1945년 미군이 한국에 상륙한지 57년이 된다. 주한미군이 국민에게 끼친 영향 중 성폭행 등 범죄와 사격훈련 등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그 실태가 보도되어왔다. 그러나 미군기지가 도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에 주는 영향, 기지내외의 오염 ·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각지의 미군기지 내외의 실태에 대해 2회에 걸쳐 소개한다.

30평 짜리 가옥 60가구 분

≪월간 민족21≫이 주한미군 8군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3만 5800명이며 미군관련 시설은 모두 90개, 그중 주요기지 41개소, 군수 · 통신시설 38개소, 훈련장 11개소이며 사용중인 땅은 6770만평이라고 한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머리 수로 나누면 미군 한사람 당 1891평 꼴이다. 31평 짜리 집 61채를 지을 수 있는 넓이다. 또한 기지는 많은 도시에서 도시계획의 장애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서울시 – 중심부에 78만평의 용산미군기지가 있다. 용산기지는 90년 이전에 합의했으나 10년동안 방치되어오다가 올해 또다시 이전을 합의했지만 언제 이전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서울시는 95년 시청사를 용산지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96년에 새청사 계획단을 구성했으나 기초설계도 착수하지 못한 채 계획만 공중에 뜬 상태이다. 또 용산기지로 인해 시내 교통이 정체해 교통량도 대폭 감소하는 피해가 나오고 있다.

경기 · 성남시 – 서울(군)공항과 육군통합행정학교 등 10여개 한국군부대가 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다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되어있어 한국의 대표적 ≪군사도시≫가 되려 하고 있다.

경기 · 의정부시 – 의정부역을 끼고 좌우에 있는 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가 시의 간선도로를 남북으로 가로막고 있다. 그 때문에 지역을 달리는 자동차는 주택가의 좁은 길을 우회해야 되는 등 시 전체의 교통망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다. 미군측은 이전요구에 대해 대체시설 비용으로 시 예산의 10% 상당 220억원을 매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 부평구 – 인구 50만의 시 중심부에 16만평을 차지하는 캠프 마캣 주변 시민들은 기지내의 폐차 해체작업 소음으로 인한 노이로제가 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 또 98년에 시작한 도로공사가 기지의 반대로 계획의 6분의 1 상태에서 중단되고 있다.

강원 · 원주시 – 캠프 롱이 지난해 기름 유출사고를 내어 주변 주민의 농지와 식수원을 오염시켜 시민단체 등이 기지이전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또 이 기지 때문에 주요도로가 절단된 상태이며 도시계획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원주시의 상수원 보호지역 내에 있는 캠프 이글도 식수원 오염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전북 · 군산시 – 미공군기지가 있는 옥서면 일대는 고도제한으로 2016년까지 시의 도시계획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로 수년 전에 기지정면에서 500미터 부근에 착공한 건물은 미군의 요구로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된 채이다.

부산시 – 3개 부대중 시 중심부 부산진구에 있는 하알리야가 교통망 등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 열리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과 테마파크 건설이 중단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기지인가

미군기지가 있는 전국 15개 자치체는 재작년 6월 피해보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전국 미군기지 주둔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사무국장 이재용 대구남구청장)를 결성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미군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지이전요구운동이 미군철수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민족시보 제970호에 계속)

민족시보 제969호 (02.03.11)

시민단체, 미국상품 불매운동 나서

인천연대, 16일 ≪미국상품 불매 · 미군기지 반환≫ 캠페인

부시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동계올림픽 편파판정 등으로 반미감정이 확산되는 가 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미국상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 16일 오후 부평문화의 거리에서 ≪미국상품 불매와 미군기지반환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은 F-15 전투기 강매, 철강 관세장벽 설치, 한반도내 핵무기 사용정책 등으로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할뿐만 아니라 분노케 하고 있다≫ 며 ≪미국정책을 규탄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미국상품 불매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선 피케팅, 선전물 배포 그리고 양담배와 미국상품을 소각하는 미국상품 불 매 퍼포먼스를 벌여 오가던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한미 양국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후속협상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부평미군기 지 반환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후속협상이 당초 15일에 서 29일께로 연기됨에 따라 협상 완료시까지 단식농성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노동일보 2002/03/17

매향리에 희망의 매화나무를

쿠니사격장 폐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매화향기 그윽한 매향리를 꿈꾸는 문화예술인 모임(대표 송영)≫은 오는 3월31일 매향리 일대에서 ≪희망의 매화나무 심기운동≫을 펼친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매화나무 한 그루 없었던 매향리다. 매향리를 매화향기 그윽한 마을로 만드는 일은 미군 폭격기의 기총소사로 만신창이가 된 땅을 살려내는 일인 동시에, 떠나간 숭어와 농게, 알락꼬리마도요새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다. 이것은 사격장 철폐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모임의 공동집행위원장인 홍일선 시인은 말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문인들은 매향리 일원에 심을 매화나무 1000그루를 준비했다. 행사 당일에는 식목뿐 아니라, 안치환을 비롯한 가수들의 공연과 시인들의 시 낭송,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낭송, 주민과의 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될 예정. ≪쿠니사격장 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도 행사에 참석, 축사를 할 예정이다.

모임 측은 ≪비단 문인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도 가능하다≫며 ≪의미 있는 일인 만큼 많은 동참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참여 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011-9775-3277(홍일선 집행위원장).

한편, 지난 주 발간된 문예지 ≪사람과 땅의 문학≫ 3호에는 매향리와 관련된 시와 소설, 산문 등이 다수 실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작가 박희주 씨는 ≪다시 찾은 매향리≫라는 르포를 통해 매향리의 풍경과 그곳을 생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아냈고, 소설가 정수리는 ≪매향리 만필≫이란 제목의 연작소설을 싣고 있다.

위 작품들과 함께 게재된 유시춘의 ≪꽃섬≫과 이상락의 ≪매향리를 아십니까≫ 역시 매향리를 직 · 간접적으로 다룬 소설들. 홍일선도 여기에 ≪매향리에 관한 명상≫이란 산문을 보탰다.

≪사람과 땅의 문학≫ 편집위원들은 ≪사람도 살고, 땅도 살고, 문학도 사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초심이 흐려지지 않는 한 매향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포연(砲煙)과 포성(砲聲)이 멈춘 매향리. 날리는 연분홍 꽃잎 아래 분분한 매화향기. 과연 이 풍경은 매향리 주민들의 상상속에서나 가능할 뿐인가? ≪매화향기 그윽한 매향리를 꿈꾸는 문화예술인 모임≫의 향후 활동을 기대한다.

홍성식기자
오마이뉴스 2002/03/17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

작년 10월 국가정보원이 통상입법예고기간을 단축, 공청회 절차도 밟지 않고 국회통과를 추진해온 테러방지법안을 여야의 합의로 12일 의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국정원에 대한 막강한 권력부여와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법안의 골자는 국정원에 검찰, 경찰, 군,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며 이 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테러관련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있다. 또 국방부 밑에 테러진압특수부대를 설치하며 국정원장이 이 부대의 출동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군병력이 국가주요시설 보호명목으로 민간인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군병력의 상시동원, 미신고죄, 도청 감청의 무제한적 허용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아무 조직이나 테러단체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체 구성원이 테러혐의로 몰리면 그 단체는 테러조직으로 규정될 수 있게 되어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목적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테러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형법이나 특별형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현재 테러행위를 예방, 수사, 진압 및 처벌하는데 대검찰청 공안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건설교통부의 항공국,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보조를 맞추어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며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들의 정당한 사회운동과 정치적 요구를 봉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법안은 국정원장이 대테러센터의 통제권한을 가지게 하고 국민들에 대한 수사와 사찰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의 정의를 보면 명백하다.

법안은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하는 폭력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당국에 찍히면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권운동도, 사회 인권단체의 통일운동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진 활동도 테러행위로 몰아붙이게 되는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민주통일운동도 탄압할 수 있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제2의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테러방지법 제정은 모처럼 이룬 한반도 평화 화해 분위기를 깨트릴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북을 ≪악의 축≫으로 분류하고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 또다시 냉전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정부와 국회는 전쟁의 화살을 한반도로 겨냥하고 있는 미국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인권 사회단체 대표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동참한 정치인들에게 ≪반민주, 반인권 악법에 손을 담근 낙인이 영원히 찍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시대역행적이다. 여야의원들은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테러방지법안을 즉시 폐기해야한다.

민족시보 제969호 (02.03.11)

민간, 금주 북에 실무접촉 제의

≪아리랑 축전≫ 참관등 논의위해

≪아리랑≫ 총연습모습

7대 종단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연대가 포함된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금주중 아리랑 축전 참가 문제 등을 논의하기위한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의할 계획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17일 ≪내달 초 금강산에서 북측과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의할 계획≫이라며 ≪이 접촉에서는 남측의 아리랑 축전 참가 문제를 비롯해 올해 민간교류 방향을 논의하고 무산된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리랑 축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번 접촉에서는 초청 방식, 관광객 수송방식 및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관광 실무자 등도 협상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남북 민간교류는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과 8.15 등 계기별로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환경, 여성, 청년, 노동 등의 분야에서 부문별 교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실무접촉의 주체를 새해맞이행사 준비위로 할지,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위를 따로 만들지 고민중≫이라며 ≪어떤 이름이 되든 종단.민화협.통일연대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용훈기자
연합뉴스 2002/03/17

국민의 86.2%가 발전소 매각 반대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 강행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길리서치는 민주노총의 의뢰를 받아 13일 3일간 실시했던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 조사 결과, 국민들은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 팔고 그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쓰는데 81%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부는 매각 계획을 보류하고 먼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국민의 86.2 %가 찬성한 것으로 발표됐다.

20일째를 맞고 있는 발전노조파업과 관련해서, 국민의 84%는 정부가 노조와 진지한 협상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타결해야 한다고 응답, 국민 대다수가 원만한 파업 해결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들은 발전노조원들을 대량해임, 구속,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찰력 투입 등 강경정책을 행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발전소 민영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값싸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전력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산업 자원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민의 63.6%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0.1%는 한국전력이 현재 산업용, 농촌, 낙도 등에 전기요금 할인 등 수익성과 관계없이 행하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여론조사는 발전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발전소 매각 문제를 둘러싸고 처음으로 시행된 국민 여론 조사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16

청년학생대중조직의 민주주의적 운영에 대하여 (3)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2호)

≪대중조직이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적 조직으로 되려면 조직운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가 높이 발양되어야 한다.

대중조직은 어디까지나 대중 자신의 자원적 조직이다. 그러므로 대중조직은 광범위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견인해 내고 대중 자신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원칙에서 운영되어야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적극성을 발양시키는 강위력한 조직이 될 수 있다.

광범한 대중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들 스스로의 결정과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지 않는다면 대중조직이 대중과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 . .

민주주의적 대중조직이란 이처럼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이해를 옹호하고, 민주주의 변혁단계의 요구를 반영하며,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대중성, 민주주의성, 합법성의 원칙,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다음으로 학생운동간부들과 활동가들이 사업방법과 작풍을 혁신하는 것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한총련을 향해 소수의 횡포에 의해 다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이러한 ≪비민주성≫과 ≪관료화≫ 때문에 조직이 경직화되며 결국 학생운동이 자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청년학생운동을 강화발전시키자면 운동권내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과 국민의 요구를 제때에 수렴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학생대중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지 않는다면 학생운동을 승리에로 이끌 수 없다.≫(현시기 학생운동강화의 요체, 구국전선 2000 9 21)

≪한총련의 지도간부들은 독선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이 조직에 대한 학생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오의 단결을 저해함을 명심하고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일대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한총련의 지도간부들은 하부조직들에 깊이 스며들어 그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고 창조적 지혜를 발양시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대중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구현하며 동지애로 심장을 불태우고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지니고 사업해야 할 것이다.≫(청년학생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자, 한민전 청년학생국장 2001 2 11)

≪**사회자 :**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조직내 민주주의를 방법있게 잘 발양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학생들속에서 학생조직이 관료화되고 운영방식이 폐쇄적이고 경직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조건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옳은 지적이십니다. 학생운동조직이 대중조직답게 큰그릇을 가지고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결함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좀더 아량을 가지고 학생들을 포섭해야겠는데 노선와 지향문제에서 조금만 의견차이가 있어도 상대방을 배척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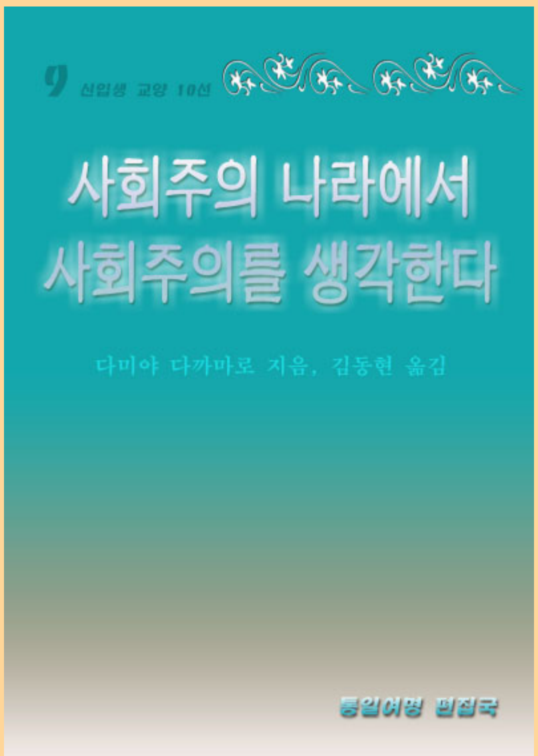
사회자 : 일부 핵심운동가들의 이같은 편협한 사업작풍

→

광고

신입생들에게 권고하는 교양서 10선

인생의 선배로서 대학의 선배로서 신입생들의 입학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황금기로 여기는 대학시절이기에 그 운명을 결정하는 신입생시절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대학시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학시절의 길잡이가 되고 인생의 좌표가 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들이 신입생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기를 권고하는 교양서적들입니다. 신입생여러분들은 이 열 권의 양서를 정독함으로써 향후 무슨 책을 읽고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이남은 자본주의사회이고 이북은 사회주의사회이므로 자본주의사회만 알고 사회주의사회를 모르고서는 절반의 조국만 아는 셈이다. 민족간부를 지향하는 대학생들이 어찌 조국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의 필자는 비행기를 납치해서 이북으로 탈출한 일본의 한 테러집단의 대표로서 이북에 살면서 이북식 사회주의에 대해 느낀 점을 생생하게 서술한다. 조선을 업수이 여기는데 버릇된 일본인의 눈, 쏘련사회주의 좌절 이후, 테러가 횡행하는 오늘의 세계 . . .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 책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신입생들의 흥미를 끌기 충분하다.

2000년 전세계는 ≪**김정일**충격≫에 휩싸였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은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김정일**위원장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지구촌에 ≪핵폭풍≫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김정일**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 조국의 절반을 알기 위해서, 조국통일의 전망을 그리기 위해서, 오늘 세상 돌아가는 맥을 짚기 위해서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책은 90년대 캐나다의 한 동포가 저술한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전기, 일화집으로서 **김정일**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역사적으로,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깊이 이해하는데 좋은 책.

은 대오의 단합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고 있죠. 학생운동조직은 이런 경직된 운영방식을 하루빨리 없애고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민주주의를 잘 발양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러자면 관료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야하는데요. 학생운동 핵심성원들은 향기를 풍겨 나비와 벌들이 날아드는 꽃처럼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학생들을 따뜻이 대하며 특히 주의주장이 좀 다르다고해서 배척하거나 따돌리지 말고 능숙하게 포섭해서 광범위한 대중을 모두 학생조직에 굳게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학생운동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그에 걸맞게 조직체계를 잘 꾸려야하죠.

윤정원 : 그럼요. 조직을 대중운동조직답게 튼튼히 꾸려야 대중속에 뿌리박을수 있고 따라서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갈수 있습니다.

학생운동조직을 튼튼히 꾸리자면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망라할수 있게 조직을 내오고 학생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조직을 강화하는게 중요하죠.

그러자면 능력있고 애국심이 높으며 작풍이 좋은 그리고 대중성이 강하고 학생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학생들로 학생회를 꾸리는 것과 함께 일사분란한 조직체계와 사업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할겁니다.≫(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되려면, 구국의소리 2002 1 27 – 2 3)

≪**김현규 :** 이번 겨울방학에 청년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한해동안에 학생운동을 한번 돌이켜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가 없는 미래가 없듯이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는 건 앞으로의 학생운동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난해 학생운동에서 경험적인 것은 무엇이고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개선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나간 2001년 학생운동을 정리해 ************ 연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것은 적극 살리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은 대담하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이와 함께 새해에 학생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또 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감정, 정서에도 걸맞는 참신한 투쟁형식과 방법도 개발하고 학생운동대오의 단합을 이룩하며 조직체계도 정비하고 개편,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그리고 말이죠. 청년학생들은 방학기간에 자신을 정신무장하기 위한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몇해동안 학생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책동으로 일부학생들 속에서는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동요하는 현상이 있는가하면 운동권일각에서 표현되고 있는 분파주의, 관료주의현상도 바로 청년학생들의 준비정도가 부족한 데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방학을 맞는 학생들에게, 구국의소리 2002 2 19 – 21)

*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쏘련을 비롯한 일부사회주의나라들이 망한 이유는 관료주의의 병폐와 수정주의적 변질에 기인한다. 혁명선대들의 수십년간에 걸친 피어린 투쟁의 전취물은 당이 관료주의의 낡은 정치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변혁적 원칙을 거세한 수정주의를 끌어들임으로써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관료주의, 수정주의는 변혁과 건설의 전과정에서 일관되게 경계하고 투쟁하여야 하는 반변혁적인 반동사상으로서 참다운 지도이념과 정치방식이 구현될 때에만 궁극적으로 청산될 수 있다.

. . .

관료주의는 중앙의 일군이라면서 기층의 의견을 들을 생각은 하지않고 책상위에서 작성한 계획서만을 내려먹이며 호령하는 식으로 사업하는 낡은 사업방식이다. 이런 기회주의사상이 기생하는 주체적인 원인이 민족해방자주대오의 전반적인 조직사상수준이 높지 못한데 있다면 객관적인 원인은 당국의 탄압과 회유 책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해방자주대오내의 수정주의와 관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완성된 노동자계급의 변혁사상이며 자주시대의 향도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운동대오가 철저히 무장하는 한편 민족해방자주대오에 변혁적 원칙을 확립하고 변혁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민중적인 사업작풍을 구현하여야 한다.≫(일체의 분파주의를 타파하고 원칙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하자, 구국의소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2000 11 15 – 17)

(끝)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3)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온 민족의 대단결은 높은 권위를 지닌 구심점이 있어야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민족에게는 커다란 행운이 차례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와 같으신 걸출한 민족의 령소를 모시였기 때문이다.

무릇 어떠한 민족이든지 력사발전의 행정에서 민족의 운명 개척을 주도해나가는 령도자를 맞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어느 민족치고 **김일성**주석과 같이 자기 민족을 위해 그렇듯 많은 로고를 기울이시고 그렇듯 높은 업적을 쌓아올리신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은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20세기초엽에 태어나시여 격변하는 내외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생의 첫걸음을 떼시였고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고 겨레와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시었다.

인류의 생활에 미증유의 대흔적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지도에 괄목할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걸어오신 그 분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새겨온 력사의 축도이다. 오로지 이민위천(以民爲天)의 정치성 신조를 생활의 본령으로 삼아 인민대중을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여온 한생이었다. 강도일제의 격멸과 민족해방, 인민이 주인된 새 사회의 건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수호,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만방에 과시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건설, 조국통일을 위한 계속되는 투쟁등 민족적 위업의 어느것치고 그 분과 련관되여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 하나하나가 다 그 분의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 실천의 결정체인 것이다.

그래서 온 겨레는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며 민족의 어버이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추앙하여왔다. 그 분에 대한 이러한 경모심은 어제 오늘에 비로소 형성된 것이 아니고 지난날 천대받고 눌려살던 인민들이 그 분을 따라 반일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던 때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시었다.

동무들은 이처럼 새 이름을 지어주고 노래까지 지어부르면서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내세웠다. 나를 내세우려는 그들의 성의는 참으로 극진하였다. 내가 나이도 어리고 투쟁경력도 짧았지만 그들이 나를 내세우지 못해 그처럼 애쓴 것은 통일단결의 중심도 없이 각 당, 각 파가 저마끔씩 영웅호걸행세를 하면서 파쟁으로 혁명운동을 말아먹던 전 세대의 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나라를 찾자면 2천만 민중이 합심해야하며 2천만 민중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자면 령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벼에 사무치도록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 107-108페지)

우리 인민은 벌써 항일혁명의 출발점에서부터 민족운명 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령도자가 갖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김일성**주석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우러러 받들어 모시였던 것이다.

(계속)